

감옥에서 천국으로

며칠전 뉴욕주 싱싱교도소로 한재소자를 면회하러 면회실에서 기다리는데 교도소내 행사에서 만났던 한 스페니쉬 재소자가 반갑게 달려와 인사를 하며 내게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며칠전 내가 면회를 했던 다른 한인 재소자가 석사학위 졸업식에 최우수졸업자 연설을 했단다. 그 연설 마지막 부분에 거기 참석한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게 한국말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국인 한 재소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이었지만 그의 얼굴표정과 목소리의 감정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수있었기에 거기있는 모든사람을 울리고 급기야는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내앞에서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나는 이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회한에 찬 감동을 느끼지 않을수없었다. 내가 이글을 쓰면 정녕 이상황을 가슴으로 함께 느끼고 이해할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될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쓰지않을수없는 사명을 느낀다. 이 재소자는 정말 앳되고 순박한 나이에 차분한 아름다움이 있는 얼굴을 가진 내 이웃의 흔히 볼수있는 평범한 그런 아이였다. 그런 그가 17밖에 안된 나이에 한인사회를 왈각 뒤집어놓는 사건에 휘말려 형을 받고 9년을 살고있었다. 부모님들의 정성어린 뒷바라지가 계셔서 내가 자주갈 필요가 없어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다른 재소자들을 통해 항상 좋은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대학을 이어 대학원공부까지 하는 그를 만난 며칠전의 면회때는 부쩍 성숙해진 그의 내면과 타고난 온화하고 과묵하고 부드러운 그의 성품과 태도를 보며 과연 내가 이런 재소자가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세상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전도사님이 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교도소에 가요” 라는 식상하는 반응으로 인해 실망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을 볼것같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내가 보고 감동받는 많은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느정도 포기를 하며 살고있는지도 모른다. 상담중에 지나친 마약복용으로 내앞에서 눈동자가 희희 돌아가는 아이를 보는, 마약복용 후유증으로 나와 이야기하면서도 깜빡 깜빡 기절현상을 보이는 아이를 보는, 희죽희죽 웃다가

희귀하도록 험상궂은 표정으로 보이지않는 것과 이야기하다 내물음에 잠시 정신을 찾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을 매일 보는 ... 이런 나의 삶의 현장은 결코 아름답다고는 할수없는 비극과 비참의 현장이라고 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기적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는 즐거움과 희열이 함께 공존해 있기에 나는 내삶에 늘 감격하고 감사해 한다. 누구도 가기싫어하는 끔찍한 교도소에서 가치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는것을 천국의 삶으로 비교한다면 지나친것일까 ?그러나 천국같이 넘치는 자유속에 살면서도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보는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해보고 싶다. 어 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우리의 엄숙한 질문이 되어야하며 어느누구도 보이는것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것은 죄이며 착한 사람 나쁜사람을 가리는것이 얼마나 미련한것인가를 매일 나에게 가르쳐주는 나의 삶을 나는 오늘도 정말 사랑한다.

이 상숙 전도사



(한여름밤의 캠프화이어)